불교는 과연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생태계의 위기나 환경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불교 사상을 자연과 환경, 생태 문제 등 사회적 이슈들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학술 세미나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 주최로 지난 2일 열렸다.

'불교생태학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는 "환경 위기 등에 직면한 현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문명론적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교생태학은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박 교수는 "불교생태학은 협의로는 환경, 생태의 문제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응용불교학의

"환경·생태위기 대안 불교사상"

불문연 생태학 세미나

한 분과학문이지만, 광의로는 불교와 생태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뤄지는 통합적 학문"이라고 불교생태학의 정의를 내리며 불교문화연구원 산하에 '불교생태학연구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석 전임연구원(불교문화연구원)은 역시 "생태계와 환경의 위기는 결국 인간중심적 가치관의 산물"이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련성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연기의 법칙이야말로 존재와 존재 사이의 조화와 공존을 가능케 하는 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생태불교의 가능성은 불교의 가르침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축 연구

연륜연대학 활용 필요

이강근 경주대 교수 한국미술사학회서 발표

자연과학에서 쓰이는 연륜연대학(年輪年代學,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 과거의 기후나 환경, 연대 등을 알아내는 방법)을 고건축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최근 열린 한국미술사학회(회장 변영섭) 제134회 월례발표회에서 경주대 이강근 교수(문화재학부)는 "연륜연대학을 이용하면 사용된 목재의 벌채 시기까지 알 수 있어 논쟁이 되고 있는 목조건물의 연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다"며 고건축 연구에 연륜연대학의 연구성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 공포 모습.

지금까지는 주로 수리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상량문(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 등을 적은 글)을 근거로 목조건물의 대체적인 양식 변화를 이해해 왔다. 하지만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정도로 연대 구분이 가능할 뿐 여말선초나 조선중기의 양식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조선후기라도 300여 년간의 양식 변화를 세분화해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목조건물 목재 벌채시기까지 파악 가능
고건축양식 규명에 객관적 자료 가능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부터 해체보수 공사에 들어간 전북 완주 화암사 극락전. 1981년 해체수리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정유재란 때 불타 조선 선조 38년(1605) 다시 건립했음을 알 수 있는 화암사 극락전은 금산사 금강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하앙식(下昻式) 건물. 바깥에서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하여 처마를 훨씬 길게 내밀 수 있게 한 하앙식 구조는 백제시대까지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부재다.

문제는 극락전의 앞과 뒤에 남아있는 하앙의 구조가 다르다는 데 있다. 원래 하앙은 극락전 뒤쪽에 남아 있는 하앙처럼 끝부분이 예리하게 치켜 올라가 있는 모양. 반면 앞쪽의 하앙은 용모양이 장식돼 있어 같은 종류의 부재이면서도 양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뒤쪽의 하앙은 임란 전에 있던 부재를 그대로 썼고 앞쪽은 조선후기에 새로 해 넣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연륜연대학 연구가인 박원규 교수(충북대 임산공학과)가 해체보수 공사시 버린 하앙을 수습해 연륜연대를 측정한 결과 앞뒤 하앙의 벌채 시기가 1605년으로 똑같이 나왔다"며 "이는 정유재란 때 불타고 지었다는 기록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존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고려 말이나 조선초기냐는 논란이 있는 봉정사 대웅전 등에도 연륜연대학을 적용하면 건립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륜연대학의 연구 성과는 목조건물의 양식사 정립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건축사가들의 몫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 양식을 그대로 따라 중수했지만 목재는 조선 후기 목재일 경우 연륜연대학만으론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맹점이 남기 때문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중국학자들이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이라고 주장해 왔던 일본 서도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석가탑서 출토된 다라니경 세계 最古 목판인쇄물 확실"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주장

인쇄문화의 종주국 자리를 놓고 한-중 간 자존심 대결 양상까지 벌여왔던 석가탑 출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판 인쇄물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서 수집가 겸 연구가인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은 3일 열린 한국서지학회 2003년도 1차 학술발표회에서 "중국학자들이 세계 최고 목판인쇄물이라고 주장해온 일본 서도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1906년 중국 투르판 발굴)에는 측천무후자가 한 글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석가탑 출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는 측천무후자 4자(證, 地, 初, 授)가 10차례 나오는 만큼 석가탑 출토 다라니경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목판인쇄물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측천무후자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였던 당나라 측천무후(690~705년 재위)가 당시 일부 한자의 글자체를 바꿔 만든 글자. 그의 사후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불교 경전 등에는 한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사용 여부나 빈도에 따라 8세기 이후 불경의 간행 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조 관장은 "690년 경 간행됐다는 묘법연화경에 측천무후자가 없다는 것은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서도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은 그 동안 외국 학자는 물론 일본 학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조 관장은 1936년 당시 서도박물관장이 박물관 허가 등기가 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동호인과 친구에게 나눠진 복제품을 입수, 검토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형진 기자

절(6)

통도사 금강계단

선덕여왕 때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당나라에 유학 간 자장율사는 급히 귀국하였다. 자장율사는 경주로 돌아오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셔왔다. 이것은 한국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진신사리를 모셔와 부처님께 직접 예배함으로써 사리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선덕여왕 당시 퍼져있던, 신라가 불국토(佛國土)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자장율사는 진신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각기 황룡사, 태화사, 통도사에 안치하였다. 황룡사에서는 이 진신사리를 9층목탑에 모셨고, 태화사는 폐허가 되어 진신사리를 어떻게 모셨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통도사에서는 2층의 계단(戒壇)을 설치하고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였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금강계단을 쌓고 이 불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삼재(三災)를 면할 것이라 하였다. 이상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속전(俗傳)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자장에게 항복한 독룡은 모두 아홉 마리인데, 그 가운데 한 마리만은 굳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여 자장은 그 용의 청을 들어주었다. 지금 그곳이 금강계단 옆의 구룡지(九龍池)이다.

그러면 자장이 세운 금강계단은 어떤 모습일까? <삼국유사>에는 그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통도사 계단은 두 층이 있는데, 위층 가운데에는 돌 뚜껑을 안치하여 마치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과 같다." 지금 남아 있는 금강계단은 이 기록처

◇통도사 금강계단.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이를 제도하였다."(<삼국유사 의해편>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중)

국내 최초로 戒壇 쌓고 진신사리 봉안
현재는 고려~일제시대 조형만 남아

럼 2단의 기단 위에 가마솥 모양이라기보다는 종 모양에 가까운 탑이 놓여있다. 그런데 1997년 문명대 교수(동국대)의 세밀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의 금강계단은 여러 차례 중수가 이루어져 자장율사 당시의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종모양의 탑은 고려시대의 것이고, 기단은 조선후기의 특징이 보이며, 아치형의 돌문과 석등은 일제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층의 계단 위에 탑'이라는 신라시대의 형식은 간직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고려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의 조형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계단을 설치한 통도사가 갖고 있는 명성과 역사는 결코 중수(?)되지 않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강석에 비유한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치하여 진신사리를 모심으로써 통도사는 불보(佛寶)의 사찰로서 명성을 얻게 된다. 이곳에서 계를 받는 것은 곧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스님들이 정통으로 수계를 받는 장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통도사를 비롯하여 태백산 정암사, 영월 법흥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에 5대 금강계단이 설치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김제 금산사, 개성 불일사에 금강계단이 세워졌다.

통도사 창건에 관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흥미로운 설화가 전한다. 문수보살이 자장율사에게 진신사리와 가사를 주면서 취서산(鷲栖山, 영취산의 옛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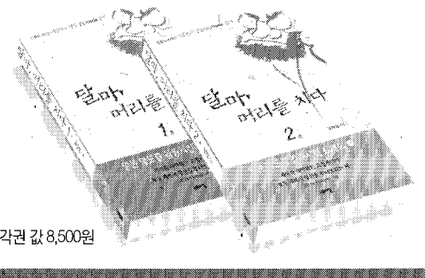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오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눈 선문답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범희 선사가 있었다. 범희는 저 유명한 마조 도일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이리 잘자코 오너라." "범희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마조가 한 주먹 쥐어박았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귀가 여섯이 있어서 은근한 모의를 할 수 없다.
내일 다시 오너라."
—「머리에서 벗어나라」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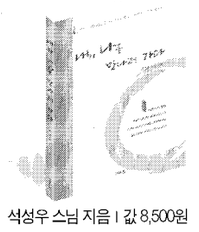


素空慈 지음 | 각권 값 8,500원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마음 명상 태교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 지음 | 값 8,500원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쳐도 텅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자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변역 석 명정 | 값 8,500원

마음 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 〈편집자 레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스님外 | 값 9,500원